

광엽잡초 (외래잡초 1)

■ 이인용 농촌진흥청

가는털비름

남아메리카 원산지인 비름과인 일년생잡초이다. 주로 밭, 목초지, 들과 파수원 주변에 발생된다. 줄기는 곧게 자라며, 높이는 80-200cm로 위쪽에서 가지를 치며 어린 가지나 잎에 연한 털이 있다. 주당 종자생산량이 30,000립 내외로 한번 발생하면 쉽게 방제할 수 없다. 주로 콩밭이나 옥수수밭에서 많이 발생하며, 초기생육이 빨라 작물의 초기 생육기 때부터 차광에 의한 손실을 입어 수량이 떨어진다. 가는털비름은 대형식물로 줄기를 잘라도 재생능력이 강해 양·수분과 빛을 둘러싼 경쟁이 심하다. 작물 파종직후에 사용되는 토양처리형 제초제로 쉽게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단풍잎돼지풀



북아메리카 원산지인 국화과 일년생잡초로 197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악성 외래잡초이다. 주로 경기 및 강원도의 북부지방의 강가, 하천가, 길가, 파수원, 쓰레기장 등에 많이 발생했으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생태계 위해 외래잡초'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초기생장이 왕성하고, 키와 잎이 큰 관계로 작물과의 광경합에서 불리하다. 또한 꽃가루에는 알레르겐(allergen)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알레르기, 비염 및 천식까지 일으킨다. 대부분 도로변에 발생하므로 예초하거나 비선택성 경엽처리제로 방제할 수 있다.

도깨비가자



북아메리카 지방이 원산지인 다년생 초본으로 제주도과 중·남부 지방의 일부 초지에 많이 발생되고 있다. 줄기와 잎에 가시가 있어 가축이 섭식을 기피하며, 농작업을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뿌리의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방제가 매우 어려운 잡초이다. 꽃은 5~9월에 피며, 열매는 지름 1.5cm 정도의 주황색 구슬모양이다. 토양처리제 사용은 제한적이나 경엽처리제인 글리포세이트액제, 트리클로피르티에이액제, 디카바액제 등은 도깨비가자가 10엽기일 때 95%정도 방제할 수 있으나 인근 작물에도 약해를 유발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미국가막사리

미국에서 건너온 외래잡초로 국화과의 일년생으로 습한 곳을 좋아해 논·밭의 가장자리, 논둑, 휴경지 등에 많이 발생한다. 가막사리 줄기는 녹색인 반면에 미국가막사리 줄기는 붉은 색을 띠고 있다. 종자에는 2개의 까락이 있어 사람의 옷이나 동물 털에 붙어 여러 곳으로 종자를 전파, 발생이 확산되고 있다. 논 고르기를 잘못하여 논바닥이 보일 때 발생이 많으므로 써레질을 잘하면 경종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일반적인 토양처리형 제초제로 방제 가능하며, 벤틀존액제 등 경엽처리 할 수도 있다.



미국외풀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현삼과의 일년생잡초이다. 우리나라에는 1994년에 처음 발생하여, 실향농우레아계 제초제 저항성잡초로 습지나 논, 논둑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 줄기는 높이 10~30cm 정도로 발뚝외풀보다 다소 크다. 잎 가장자리의 톱니 유무로 미국외풀과 발뚝외풀을 식별할 수 있다. 벼에 대한 피해는 주로 양분경합으로 나타나는데 벼 생육 초기에 현저하다. 본답초기에 발생함으로 초기처리 제초제의 방제방법이 효과적이며, 생육 중에는 경엽처리 제초제를 살포하면 방제가 가능하다. Y